

SKT, 5G 신규 요금제 2종 출시

**- 4월1일부터 ‘5GX 레귤러/레귤러플러스’ 2종 신설해 5G요금제 라인업 강화… ‘고객 선택권 확대’**

**- “고객 이용패턴과 사회적 니즈 고려한 다양한 신규 요금 상품 지속 선보일 것”**

|  |
| --- |
| **엠바고 : 온라인 기준 3/17(수) 12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3. 17]**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5G 신규요금제 2종을 오는 4월1일부터 새롭게 출시, 고객 요금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5G 요금제 2종은 각각 월 69천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와 월 79천원에 데이터 25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플러스’다. 이번 5G 요금제 신설로 기존 5GX 스탠다드(월75천원) 요금제는 4월1일부터 가입이 중단된다.

SKT는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월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량 이용 고객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GX 레귤러’ 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GX 레귤러플러스’는 기존 5GX 스탠다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50GB 확대(200GB→250GB)해 1MB당 요금 가격을 낮춰 데이터를 다량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SKT는 4월1일부터 슬림(월55천원) 요금제와 5G 언택트38(월38천원)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도 기존 9GB에서 10GB로 확대해 저가 요금 사용 고객의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요금제 출시로 SKT의 5G 요금제는 언택트플랜 3종 및 청소년 요금제(0틴 5G)를 포함해 총 9종으로 확대된다. SKT는 지난 1월 온라인 전용 요금제 ‘언택트플랜’을 출시한데 이어 5G 신규 요금제 라인업을 강화하며 업계의 건전한 요금 상품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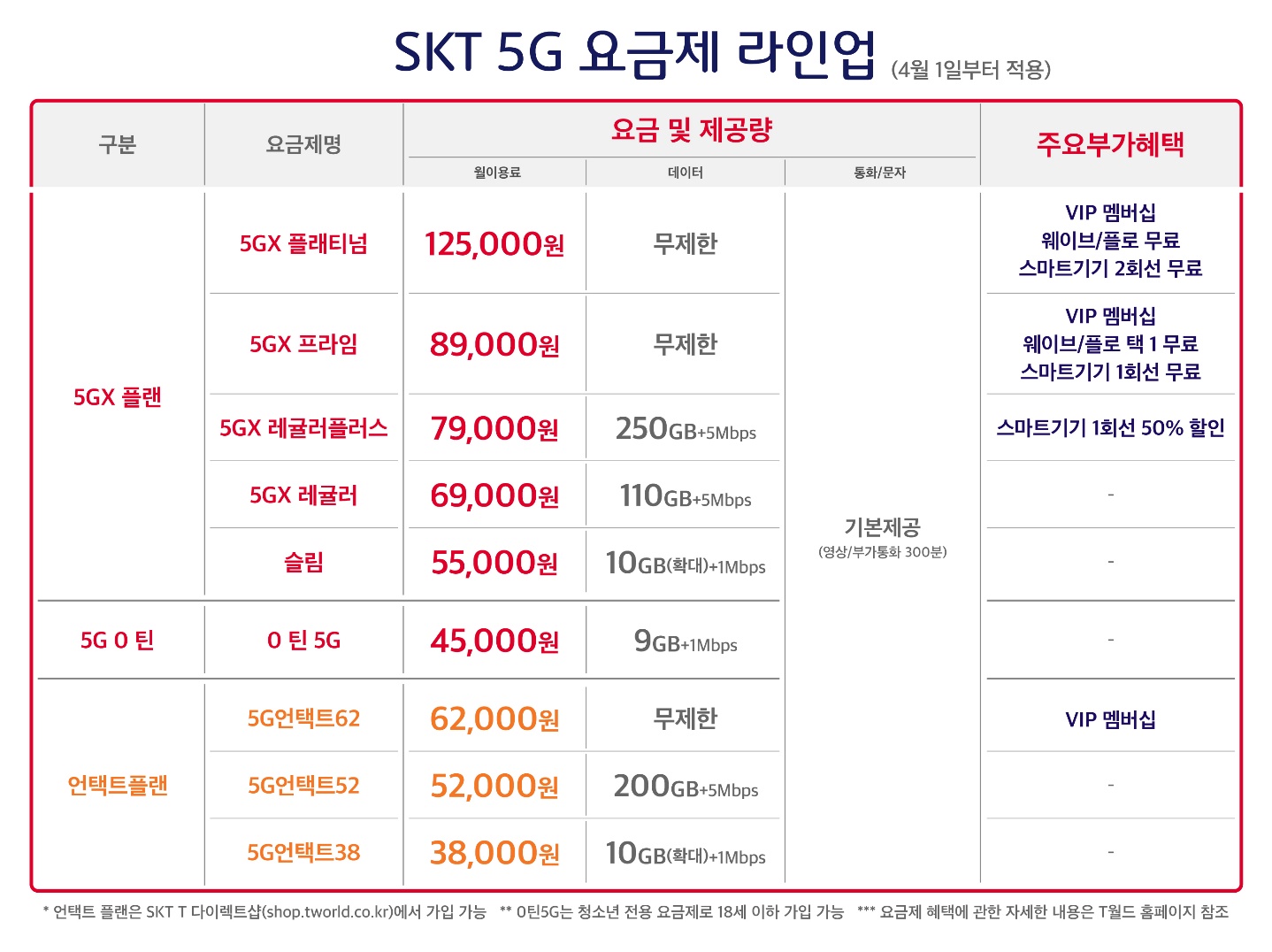
한명진 SKT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5G 신규 요금제 출시로 SKT 고객의 요금 선택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패턴과 사회적 니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  SKT는 오는 4월1일부터 5G 요금제 2종을 새롭게 출시해 고객의 요금 선택권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 관련문의 : SKT PR실 기업PR팀 김동영 매니저 (02-6100-3817)**

**<끝>**

**※ 참고**

****